

**01 교회소식****여호와 이레!**

교회 개척 38주년에 이르기까지 '만민'을 인도해 오신 애벤에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02 생명의 말씀****'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가나안 정복이라는 본격적인 약속의 성취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03 기획특집****"주님은 나의 노래~"**

교회 개척 38주년을 맞아 만민을 만난 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영육 간에 축복이 넘치는 성도들의 간증.

**04 간증****'만민'을 만나 변화된 삶**

인도, 일본, 몰도바 성도들이 만민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삶이 변화되는 등 축복받은 간증을 전한다.

# 만민뉴스

제924호 2020년 7월 19일(주간)

##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http://www.manmin.org)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교회 개척 38주년,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오는 7월 26일, 우리 교회가 개척 38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우리 교회는 1982년 7월 25일 개척 때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세계 선교에 힘써왔다.

초대교회 같은 표적과 기사, 놀라운 권능의 역사와 더불어 구제와 선교에 힘쓰며, 1980~90년대에는 민족복음화와 각종 교계 연합행사에서 일의를 감당함으로 개신교 부흥에 한몫을 담당했다.

### 세계 곳곳에서 해외 연합대성회로 복음 전파

2000년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우간다를 시작으로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러시아, 폐루, 미국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해외 연합대성회 시 따르는 표적과 폭발적인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이를 통해 무수한 영혼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특히 2009년 9월에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연합대성회를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개신교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글로벌 초대형교회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개척 때 주신 비전대로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를 왕성히 이루는 글로벌 초대형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다. 우리 교회의 빼른 부흥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성경 속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며 놀라워했다.

이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시 62:11) 하신 대로 개척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 권능의 역사로 보장해 주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 권능으로 함께하신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기도할 때 국내는 물론, 시공을 초월하여 해외 곳곳에서 불치·난치병들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이 받은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GCN방송과 책자,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함으로 복음 전파가 활발

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 시대에도 국내외 성도들이 만민의 양 떼로 등록하며, 지·협력교회가 늘고 있다.

###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드러날 마지막 때 섭리

하나님께서는 1982년 9월 어느 날, 17명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건축하게 될 대성전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다.

이 대성전의 지붕은 십자가 형태로 개폐되고, 대성전 안 강단은 중앙에 위치하면서 회전하게 된다. 그 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대성전은 지하부터 십자가의 탑까지 높이 70m, 면류관 모양의 원형이며 지름이 600m나 되는 초대형 성전이다.

지금까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엄과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이 대성전 건축을 통해 마지막 때의 섭리 가운데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민을 친히 인도해 오신 애벤에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름답게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이레의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호수아 3:14~17)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여리고를 향한 길목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요?

### 1.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백성을 앞에서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당시 요단강은 제법 큰 강이었으며,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 물살이 센 편이었고, 우기철로 수위가 연중 최고로 높을 때였습니다(수 3:15). 수백만 명의 백성이 노약자와 아이들, 집까지 잔뜩 가지고 건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수 3:5) 당부합니다.

다음 날, 여호수아가 전해 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처음 출애굽 했을 때 애굽 군대가 수장됐던 흥해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닌 백성 전체의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흐르는 요단강물을 발로 밟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흐르는 물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위에서 내려오던 물은 멀리 떨어진 곳에 쌓이기 시작했고 아래쪽의 물은 사해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수 3:16). 물길이 끊어진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함께 서 있는 동안은 계속하여 물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였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신속히 강을 건넜지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자 즉시 위로부터 물이 다시 흘러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고, 마치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믿고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이 역사를 기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열두 개의 돌을 취해 강을 건너 후 처음 유숙한 곳에 그것들을 기념비와 같이 세우게 하셨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선 곳에도 열두 개의 돌을 세우도록 하셨지요. 이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수 4:19~24).

요단강이 멈추는 놀라운 권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온갖 죽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 소식에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잊을 정도였지요(수 5:1).

### 2. 여리고성 점령 전,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 1)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

한층 사기가 높아진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이라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기를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 표피 끝을 난 지 8일 만에 잘라내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시며, 이스

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일 곧 할례를 명하시지요(창 17:10). 이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하는 의미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통증으로 며칠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적군이 공격해 온다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니 생각을 동원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있으므로 이때도 두말 없이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처가 다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으로 적들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 2) 전쟁 상황임에도 할례를 명하신 이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굳이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단순히 종족간의 영토 전쟁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영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악한 영들 사이의 치열한 전쟁입니다(엡 6:12). 영적 전쟁의 결과에 따라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패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절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절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로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송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에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출 17:11) 하여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음의 정결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를 통해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할례를 명하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본격적인 약속의 성취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죄악에서 떠나 정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신 것입니다.

### 3) 할례의 참뜻은 마음의 성결

육적으로 볼 때 할례는 몸을 베는 것이라도 영적으로는 예레미야 4장 4절에 “…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한 대로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곧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비진리와 악, 불의와 불법, 어둠을 벗어 버리고 진리를 지켜 행함으로 성결되어 가는 것이지요.

다만 구약 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니므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죄를 온전히 버릴 수가 없었기에 할례 의식을 거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표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지식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에 불과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열심히 행해야 하지요.

즉 죄악을 베리고 계명을 지킴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음의 할례가 구원과 직결된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넓은 바다를 순간에 갈라 길을 내고 범람하는 강물의 흐름을 멈추며 하늘 문을 열어 일용할 양식을 주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범람하는 요단강의 흐름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강물을 밟았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가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 이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비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치료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박난숙 집사 (58세, 1대대 8교구)

2004년, 친정어머니의 전도로 만민중앙교회에 왔습니다.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성전에 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었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진정 살아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통 받던 위궤양, 신경성 위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허리·목 디스크, 수족냉증을 치료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 있었지요.

역경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기에 저는 기도를 쉬지 않으며 구역장, 기관장, 성미·꽃꽂이 봉사로 충성하면서도 요양보호사로 일해 삼남매를 교육시키고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함께 하는 믿음의 가족,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이었지요.

올해 초 제 신앙 여정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에 물이 차고 아팠는데, 지난 1월 31일 은사 집회 때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 건(행 19:11~12) 기도를 받자 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도 무릎에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터에서 독한 약품을 사용하다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심할 때는 호흡곤란과 옆구리 통증 까지 있었는데 이 증상도 함께 치료되었지요. 2월 초부터는 급여가 20% 이상 오르는 축복에 보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무 데도 의지할 곳 없던 제가 만민을 만나 이처럼 많은 축복을 받고, 무엇보다 천국 소망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8th  
교회개척 38주년  
The 38th Church Foundation Anniversary

## “주님의 사랑이 제가 숨 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선지영 권사 (46세, 2가나안선교회)

의대졸업반 때인 2001년, 어머니가 참 목자를 만나기 위해 금식하시던 중 만민중앙교회 부흥성회에 참석해 은혜받은 뒤 제게도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수록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전달됐고, 성경으로만 읽던 기사와 표적이 당회장님의 기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믿음이 되었습니다.

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지치고 힘들어 때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교회에 가면 늘 주님의 위로가 느껴져 모든 힘듦과 슬픔이 녹아지고 새 힘을 받곤 했지요.

사실 저는 몸이 무척 약해서 당직이 많은 전문의 과정을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언턴, 레지던트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당회장님의 환자기도,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통해 지킴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왔지요.

수년 전 디스크로 인한 급성 허리 통증으로 앓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을 때도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어느덧 만민에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만민의 양 떼가 된 뒤로 날마다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달려오니 부정적인 성격이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도 세워졌지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도 온라인 다니엘철야를 통해 작정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나오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 “성경의 의문이 풀리고, 신장 결석의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저는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나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없었으며 늘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중학생 때 삼촌 집에서 성경에 관해 쓴 책을 읽고 교회에 나가게 됐지만 성경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2013년 초부터 친구 아버지의 소개로 델리만민교회에 출석한 저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며 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지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한 깊은 것들을 배우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그러던 2018년 12월 3일,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 신장에 결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앓지도 눕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 하며 비명을 질렀고 소변도 잘 볼 수 없었지요. 이로 인해 신장과 요도에 소변이 고이기 시작했고, 수신증(콩팥



**수레쉬 넥타 집사**  
(32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 확장된 상태)에 걸렸습니다. 또 신장이 팽창되고 위장까지 부었지요.

여섯 후인 12월 9일 이수진 목사님에게 요청해 기도 받은 뒤 통증이 사라졌는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을 주셨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지요.

그 달 26일 다시 병원을 찾으니, 의사는 신장에 있던 결석이 요관으로 내려갔는데, 그 크기가 8mm로 를 뿐만 아니라 매우 딱딱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커다란 결석이 신장에서 요도 쪽으로 빠져 나온 것이었지요.

며칠 후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한 저는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화장실에 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변을 보는 동안 아무런 통증 없이 제 몸에서 결석이 빠져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결석이 나와 저는 이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정부 병원 간호사로서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돼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넘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 “삶 속에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이와모토 요코 집사**  
(53세, 오사카 만민가정교회)

을 끓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되어 지금은 잘 달릴 수 있으며, 장시간 무릎을 끓고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편도선 비대증’으로 자주 감기에 걸리고 목이 아팠는데, 지금은 감기도 걸리지 않고 목도 아프지 않지요. 한번은 제 아들이 발바닥에 티눈이 끓아 고통스러워하기에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얹고 기도했는데, 티눈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일도 체험하였습니다.

저희 오사카 만민가정교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크리스천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 그 증거가 되는 제 간증을 소개하면 그들은 만민을 사모하게 되지요.

만민을 만난 뒤, 제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우신 제단에서 성경 속의 삶을 사는 참된 자녀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7년 전, 우연히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받고 만민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제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쳤지요.

저는 십대 때부터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인해 무릎을 펴지 못하고 제대로 달릴 수도 없었으며, 무릎

저는 6년 전, 만민의 양떼가 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로는 믿어지지 않던 천국과 지옥이 당회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마음에 확실히 믿어졌지요.

또한 다니엘철야 기도회

에 참석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축농증으로 인해 항상 코가 막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할 정도로 심각했지요. 저는 어디에 가든지 항상 약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에 불편함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니 얼마 후 축농증을 치료받아 정상이 되었고, 물론 약이 전혀 필요 없게 되었지요.

또한 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셨고, 치료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민교회에 나오신 뒤로는 각종 예배에 참석하며 뜨겁게 기도하시더니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통해 어느새 허리 통증이 짜사라졌지요. 이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 받으셔서 소원하던 치과 치료를 받게 되어 이제는 활짝 웃고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설교를 통해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믿어졌어요”



**울리아나 게츄 성도**  
(28세, 몰도바만민교회)

제는 6년 전, 만민의 양떼가 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로는 믿어지지 않던 천국과 지옥이 당회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마음에 확실히 믿어졌지요.

또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축농증으로 인해 항상 코가 막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할 정도로 심각했지요. 저는 어디에 가든지 항상 약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에 불편함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니 얼마 후 축농증을 치료받아 정상이 되었고, 물론 약이 전혀 필요 없게 되었지요.

또한 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셨고, 치료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민교회에 나오신 뒤로는 각종 예배에 참석하며 뜨겁게 기도하시더니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통해 어느새 허리 통증이 짜사라졌지요. 이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 받으셔서 소원하던 치과 치료를 받게 되어 이제는 활짝 웃고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筵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6길 30 ☎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 010-6218-0703
- 남포향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 054)265-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 061)425-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 055)8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 051)805-3898, 010-4999-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길 27 ☎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제3길 11-2 ☎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길 57 1층 ☎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들길 30 ☎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률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 064)712-0058, 010-2689-232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 043)845-0671,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로 112, 5층 ☎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십대천로 1177번길 12 ☎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원B/D ☎ 031)905-2419, 010-4710-9649